



[산업]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올해 1.5兆 이상증자 발판, 내년 매출 7兆 회복 자신” 10



[중소기업·창업] 내실 다지고 떠나는 임채운 Life “중진공, 이전 도약할 것”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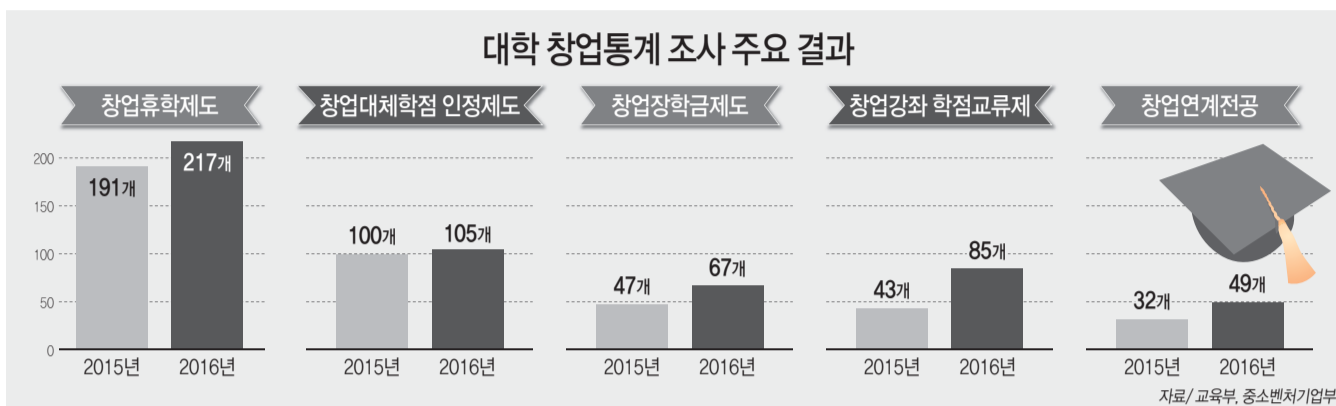


# ‘대학 창업 열기 후끈’... 창업강좌 1년새 두배 ↑

대학의 창업강좌가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창업휴학제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는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창업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원창업과 대학원생 창업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던 ‘대학 산학협력 활동 실태조사(교육부)’와 ‘대학창업인프라 실태조사(중기부)’를 일원화한 ‘2017 대학 창업 통계 조사’ 결과를 16일 공동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이버대학교와 기능대학 등을 포함한 전국 4년제 대학 273곳, 전문대학 149곳 등 총 42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 부처가 그동안 발표해 온 대학 창업 관련 통계는 내용은 일부 유사했지만, 통계 작성기준과 대상이 상이해 대학이나 창업기업 등 관계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예컨대 창업동아리 조사에서 교육부는 ‘지도교수가 있고 대학에 등록된 동아리를 기준’으로, 중기부는 ‘지도교수가 없거나 대학에 미등록된 동아리도 포함’



## 창업휴학제 등 친화적 제도 확대 창업동아리 전년비 25% 증가 등 수 늘었지만 연간 매출 실적 초라

해 조사하는 식이었다.

조사 결과 ‘창업휴학제’와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도’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대학이 증가했고, 창업강좌수, 창업동아리 수, 학생·교원 창업기업 수 등 대학의 창업 관련 주요 지표가 큰 폭으로 개

선됐다.

특히 창업강좌 수는 2016년 기준 1만 461개로 전년 4262개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창업강좌 운영학교는 313개교로 학교당 33.4개 창업 강좌가 개설됐다. 이밖에 창업휴학제도 217곳,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 105곳, 창업장학금 제도 67곳, 창업강좌 학점교류제 85곳, 창업연계전공 49곳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가 전년 대비 5.0%~125% 증가했다.

학생들의 창업 열기 커졌지만, 창업 실적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창업동아리

는 5468개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 대학생 창업자는 1328명, 창업기업 수는 1191개로 나타났다. 이들 창업기업의 총 매출액은 143억5500만원으로 창업수와 매출액이 각각 38.3%와 72.7% 증가했다.

하지만 창업기업 1곳 당 연간 매출액은 1200만원 수준에 그쳐 직원 인건비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창업 업종으로는 지식서비스업이 42.1%, 제조업 13.4% 등 기술기반 업종이 55.5%를 차지했고 고용인원은 542

명으로 집계됐다.

교원창업의 실적은 더 초라하다. 교원 창업은 총 195개로 전년 137개에서 42% 증가했으나 총 매출액은 약 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5% 감소했고, 총 고용 인원은 168명으로 기업당 고용 인원이 0.9명에 불과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원 창업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와 교원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 창업 유인책을 검토하고, 창업친화적 교원인사제도 메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원생 창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학생과 학부 중심으로 창업 지원이 이뤄졌고, 학생 창업 대부분 초기 창업기업으로 매출실적은 크지 않다”면서 “앞으로는 교원창업과 대학원생 창업 등을 통해 기술창업을 유도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업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취준생 취업 준비에 월평균 27만원 쓴다

취업 준비 자금 꾸준히 증가... 가까운 비용은 ‘어학능력시험’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을 위해 쓰는 비용은 월평균 27만원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어학능력시험 비용’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과 함께 취업준비생 14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취업준비자금은 월 평균 27만2302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된 24만713원보다 13.1% 증가한 수준으로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준생 10명 중 7명은 취업준비자금 대부분을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께 지원받아 쓴다는 취업준비생도 46.4%(복수응답)를 차지

했다.

취업준비에 쓰이는 비용 중 가장 아깝다고 느끼는 항목은(복수응답) △어학능력시험에 사용한 비용(35.9%)으로 조사됐다. 이어 △면접에 드는 교통비(29.5%)와 △면접 의상 구입 비용(20.4%) △커피나 음료 값 등 취업스터디 하며 드는 비용(19.5%) △이력서 사진촬영 비용(17.0%) 등도 취업준비 할 때 써야 하는 가까운 비용으로 꼽혔다.

이밖에 △인적성검사 등 취업준비 도서 구입 비용(13.2%) △졸업유에 맞춰 추가 수강을 위해 드는 비용(11.8%)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비용(10.5%) △자소서 첨삭 컨설팅 비용(10.4%) 등의 순이었다. /한용수 기자



장충체육관 실내 모습. (서울시)

# 장충체육관 3년만에 82만명 ‘제2의 전성기’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장한 지 3주년 문화·스포츠 행사 유치로 성황리 운영

장충체육관 제2 전성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재개장 3주년을 맞는 장충체육관이 누적관객 82만2000명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충체육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배구·농구·핸드볼 등 모든 실내 스포츠 경기는 물론 문화공연에 특화된 최첨단 시설을 갖춰 뮤지컬·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도 가능한 체육·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했다.

17일 재개장 3주년을 맞는 장충체육관은 서울 연고 프로배구단인 우리카드 남자배구단과 GS칼텍스 여자배구단의 홈구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배구경기 76회를 비롯해 자선축구대회, 이종격투기, 탁구대회 등 총 107회의 스포츠 경기가 열렸다.

색소폰 연주자 케니지의 내한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로 총 61회 개최됐다. 일반 행사는 86회 열리는 등 3년간 총 254회의 행사가 699일간 펼쳐졌다.

스포츠 경기 외에도 아이오아이(I.O.I), 몬스타엑스 등 아이돌그룹부터 케이윌, 에일리, 태진아, 송대관 등 유명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악극, 매직쇼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열렸다.

재개장 후 최대 관객이 찾은 행사는 지난해 11월 12일 진행된 프로배구 남자부 우리카드 대 KB손해보험, 여자부 GS칼텍스 대 흥국생명 간의 경기다. 이날 경기는 5851명의 관객이 찾았다.

주체육관 이외에도 장충체육관 지하 보조체육관은 아마배구리그, 소규모 체육대회, 동호회 생활체육의 장으로 이용되면서 3년간 1451회, 4만70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12월에 문을 연 다목적실도 피트니스, 댄스연습 등 생활체육과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돼 총 1078회, 약 2만9000명이 방문했다.

장충체육관은 2016년 4월부터 매주 화요일 주로 6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밸런스 운동교실과 튠탄질 운동교실 등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민 3200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50년 만에 새롭게 태어난 장충체육관은 지난 3년간 스포츠 경기 뿐 아니라 각종 문화예술 행사 유치로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장충체육관을 실내 스포츠의 새로운 성지이자, 서울의 대표적 문화체육시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범중 기자 joker@

# 신입사원 합격 스펙은? 학점 최소 3.1 이상

평균 학점 3.5, 토익 733점, 자격증 2개

올해 기업 신입사원 합격자들의 학점과 토익점수 등 스펙은 어떻게 될까. 지난해 기준 학점 자격조건이 있는 기업이 요구하는 학점은 평균 3.1점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 기업 104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 합격스펙’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합격자들은 평균적으로 학점 3.5점, 토익 733점, 자격증은 2개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 합격자 평균 학점(3.5점)은 같은 해 상반기(3.4점) 대비 0.1점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3.3~3.6점 미만’(35.6%)이 가장 많았다. ‘3.6~3.9점 미만’(26%), ‘3.0~3.3점 미만’(19.2%), ‘3.9~4.2점 미만’(8.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 기업 중 53개사가 학점 자격조건이 있었고, 이들 기업 중 71.7%는 ‘일정 학점 이상 동일하게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최소 학점 자격조건은 ‘3.0점 이상’(50.9%), ‘3.5점 이상’(32.1%), ‘2.5점 이상’(13.2%), ‘4.0점 이상’(3.8%)의 순으로 평균 3.1점으로 집계

됐다.

토익 평균점수는 733점으로 같은해 상반기보다 41점 하락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700~750점 미만’(18.8%), ‘600~650점 미만’(18.8%), ‘750~800점 미만’(15.6%), ‘800~850점 미만’(14.1%), ‘650~700점 미만’(9.4%), ‘900~950점 미만’(6.3%), ‘850~900점 미만’(4.7%), ‘550~600점 미만’(4.7%), ‘950점 이상’(3.1%) 등이었다.

신입사원 10명 중 9명은 평균 2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49.5%), ‘1개’(28%), ‘3개’(15.1%), ‘4개’(3.2%), ‘6개’(2.2%) 등의 순으로 답했다.

기업의 76%는 신입사원 채용 시 ‘자격증 관련 조건이 있다’고 답했다. 자격증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무는 ‘제조/생산’(22.8%, 복수응답), ‘재무/회계’(20.3%), ‘서비스’(16.5%), ‘연구개발’(15.2%), ‘영업/영업관리’(13.9%) 등이 있었다. /한용수 기자